

서울 청년들, '강진푸소'로 정을 품다

청자축제·다산초당 답사까지, 도시와 농촌을 잇는 1박 2일 교류

서울 관악·금천구 청년센터 회원 등 도시 청년 90여 명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진을 찾아 푸소(FUSO)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강진군과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강진청년센터가 연계해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관광을 넘어 '도시와 농촌을 잇는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강진청자축제장을 방문해 축제를 즐겼고 푸소 농가에서 숙박하며 식사 준비, 마을 이야기 나누기 등 농촌의 일상을 함께했다. 이튿날에는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답사하며 강진이 간직한 역사와 인문 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푸소 체험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농가 어르신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짧은 일정이었지만 강진이 따뜻한 고장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관악·금천구 청년센터 회원 등 도시 청년 90여 명이 지난 26일 27일 강진청자축제장에서 청자축제를 즐겼다.

이번 방문은 푸소가 단순 관광상품을 넘어 청년층 관계인구 형성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청년층의 체류 경험은 재방문과 장기 체류, 나아가 지역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푸소 체험을 중심으로 도시와 지역이 직접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강진청년센터, 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 청년 교류형 체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 관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

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푸소를 기반으로 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시 청년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증진을 동시에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당구 천재' 김행직, 2년 연속 '진도군 홍보모델' 위촉 진도군 관광, 농수특산물 홍보에 앞장

진도군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 당구의 위상을 높여온 '스포츠 스타' 김행직 선수를 진도군 홍보모델로 재 위촉했다.

김행직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당구의 저력을 입증해 온 대표 선수로, 뛰어난 집중력과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김행직 선수의 역동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관광, 농수특산물, 문화예술 등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김행직 선수가 진도군 홍보모델로서 활동하며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활

동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진도', '도전하는 진도'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김행직 선수의 성실함과 도전 정신은 진도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라며, "김행직 선수와 진도군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행직 선수는 진도군과 계약을 체결해 '진도군청'을 가슴에 달고 선수 활동을 하면서 진도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진도군 관내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진도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오재명 기자

나주시, 봄맞이 영산강정원 환경정비 자원봉사 실시

200여 명 참여... '2026 나주방문의 해' 손님맞이 구슬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함께 영산강정원 환경을 정비하며 쾌적한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2026년 봄맞이 영산강정원 환경정비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기관과 사회단체, 시민 등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나주시청과 나주시의회를 비롯해 국립나주수채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영산포발천협의회,

전문임업인나주시협의회, 한국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 영산강환경대학, 밀알하나주지부 등 각 기관 및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정원 내 산책로와 화단, 주요 관람 구간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물 주변을 정비하는 등 봄철 방문객 맞이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활동은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했다는 점에서 공동체 참여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정비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영산강정원의 경관과 이용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대표 정원인 영

산강정원을 시민과 기관, 단체가 함께 가꾸는 모습이 매우 뜻깊었다"며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사계절 내내 찾고 싶은 명품 정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화순군, 동절기 헌혈로 사랑과 나눔 실천

헌혈 적합자 101명 참여... 헌혈증 42매 기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월 27일(금)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동절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정문과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앞에 마련된 헌혈 차량에서 진행됐다. 지역 주민, 공직자, 유관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혈 적합자 101명이 소중한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특히 이날 헌혈자 가운데 42명이 헌혈

증서를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부된 헌혈증서는 향후 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헌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헌혈이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에 큰 힘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꾸준한 헌혈 참여를 이어가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중환 기자



광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광양꼬수미' 개소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기반 확충... 직업훈련과 생산활동 병행

광양시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두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광양꼬수미」가 3월 5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양시장을 비롯해 광양시의회 의원,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장, 시설 이용 장애인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시설 개소를 축하했다. 행사는 중앙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품물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두부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꼬수미」(시설장 이춘희)는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8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573.2㎡ 규모로 조성됐으

며 1층에는 두부·참기름 생산 작업장과 탈의실, 자재창고로,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상담실 등을 갖춰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2030년까지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6명과 훈련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10명이 참여해 직업훈련과 생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계적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사회성 강화, 일반고용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설장은 "「광양꼬수미」가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